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3. 29	04. 05	04. 12
대표 기도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최종열 성도
성경 봉독	최상우 형제	김정규 형제	최종열 성도

교회소식

3월의 축복 인사 :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갑시다!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사순절 기간(4월4일까지)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4. 고난주간 기도회 - 3월30(월)~4월4일(토), 오전 7시 예배당
5. Sommerzeit 시작 - 29일(주일)부터 시간이 변경됩니다(스마트폰 시계로 확인하세요)
6. 한국 방문 - 문희, Andreas Mäder 성도 가정(3월 22일 출발)
7.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십 일 조	
합계(Euro)	
온라인헌금(3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홈페이지 : 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67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이예준 형제
성경봉독 Predigttext	암 5 : 8 - 11(구p1279) (Amos 5:8~11)	이예준 형제
특별찬송 Sonderlied		정환영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끝까지 하나님되심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를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에게 회복의 은총이 임하도록
4. 일어나 함께 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끝까지 하나님 되심

아모스서는 북 이스라엘의 죄악을 강하게 책망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동시에 회복의 약속으로 마무리되는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셨습니다.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언약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1. 하나님은 창조의 주권자로 끝까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자연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질서와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뒤로 밀어냈습니다. 참된 예배는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과 일치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은 정의의 주권자로 끝까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그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공의를 삶속에서 드러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3.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신앙은 폭력이 된다.

이스라엘은 화려한 제사와 절기를 지켰지만 실제 삶에서는 약자를 억압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신앙은 형식적인 종교가 되고 결국 약자를 향한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미워하셨습니다.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언약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회복시키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사는 삶에 대해 나눠보세요.
2. 삶의 기준은 말씀인가, 편리함인가?